

● 여수화력『2008년 하반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설명회』개최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처(처장 김갑중)는『2008년 하반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설명회』를 5개업체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 21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 앞선 중소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처장은 국가 경제발전과 경쟁력 확보 위해서는 중소기업 신기술 개발 중요성을 피력 하였으며, 이번 사업소 설명회에서 개발제품의 기술정보 교류와 제품의 우수성 홍보를 통하여 제품 판로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본 설명회는 2층 소회의실에서 기계/화학분야 관련 업체로서 키벨브기술(주)외 4개업체가 참가하여 설계부서 직원들과 중소기업 기술담당자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제품의 성능, 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에 대한 기술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제품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설명회 이후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참여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설계부서 담당자들과 해당부서에서 별도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제품에 대한 기술정보 교류 및 구매상담 등제품판로 확대의 장이 되었다

● 중부발전, 자연으로 떠나는 아토피 환경캠프

한국중부발전은 환경재단과 공동으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충북 단양의 친환경마을인 한드미마을에서

「자연으로 떠나는 아토피 환경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중부발전과 환경재단이 지난 해부터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Free from Atopy(아토피 없는 세상)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이번 캠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아토피 어린이와 보호자 40명이 참여하였으며, 중부발전 사회봉사단과 환경재단 직원들이 함께 행사 기간 동안 도우미로서 활동하였다.

이번 캠프에는 부모들을 위한 아토피 강의와 어린이의 면역력 향상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등 아토피 치유에 특화된 내용으로 구성되며, 특히 사전 심리검사를 통해 아토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어린이와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한국중부발전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토피 어린이 66명을 선발, 「제2차 아토피 치료지원사업」을 함소아한의원 4개 지점과 서울의료원 아토피클리닉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지난해부터 오늘날 대표적 환경질환인 아토피로 고통받는 어린이를 돕고자 환경재단과 공동으로 「Free from Atopy(아토피 없는 세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치료지원사업과 환경캠프 외에도 순회 공개강연회, 아토피 박람회, 아토피 환아 초청 나들이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 동서발전, 윤리경영 가이드북 발간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정태호)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현장

의 윤리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담백하게 풀어쓴 「2008 동서발전 윤리경영 가이드 북」을 발간했다

이 가이드 북은 동서발전 윤리기준의 하나인 윤리강령에 따라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의 6개 테마를 메인으로 현장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연관된 윤리적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소개하여 비윤리적인 상황에 대한 올바른 길을 소개하고 있다.

‘선물수수 허용범위가 현실과 안 맞아요. 물가가 오르면 밥값도 오르는데요?’ ‘인터넷 뉴스/주식 검색, 회사 정보의 임의폐기 등 이런 것도 윤리경영이라고요?’ ‘동료를 신고하러 고요?’ 등 실생활에서 쉽게 야기되는 궁금증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이 가이드 북에서는 ‘순수한 의도로 정이 오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지 선물 금액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 ‘부적절한 목적의 인터넷 사용 및 개인적 정보 폐기 등도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요소다’ ‘부정과 불법을 용인하지 말고 Help Line을 통한 상담을 나눠라’며 애매한 비윤리 행위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또한, 딱정벌레로 인한 400년 거목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좀먹고 있는 개개인의 잘못된 습관과 같은 비윤리 행위가 우리는 물론 조직 전체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전달하는 여러 가지 지혜안(智慧眼)을 소개하여 윤리경영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한국전력에서 분사한 바로 이듬해(2002년) 윤리경영 도입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제2회 지속가능경영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할 만큼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회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정태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윤리경영 이야기 발간을 통해 임직원 모두 신뢰가 바탕이 되는 최고수준의 윤리경영을 찾아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 한다’ 라고 말했다.



하동화력본부, 지역주민 대상 발전이해교육 시행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상갑) 하동화력본부는 지난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3회에 걸쳐 협력사에 근무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발전이해기반 조성 교육을 시행,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南電과 하동화력본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지역 여론을 형성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교육은 하동화력본부에서 추진하는 I ♥ KOSPO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하동화력의 위상을 알려 존경받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는 한편, 발전 원리를 이해시켜 발전사업에 대한 공감대와 협조를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총 3차에 걸친 교육에서 협력사인 금성환경, HPS, 일진정공 및 한전산업개발에 근무하는 지역주민들 90여명은 하동화력의 지역기여도 및 발전소 현황, 발전원리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을 받고 발전시설을 견학하였다.

○ I ♥ KOSPO 운동은 南電의 비전 달성의 직·간접 주체인 회사, 직원, 고객의 역할과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호혜

적 관계를 바탕으로 각 주체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기 위한 기업운동임.

하동화력본부는 이번 교육이 발전소 지역주민과의 신뢰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 이미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동화력본부는 향후에도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유대의식을 강화하는 스킨십 경영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두산중공업, 원전설비 신기술 인증

두산중공업은 8월 26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신기술 인증서 수여식에서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자동감지 및 원격감시를 통한 핵연료 취급 장치 자동제어 시스템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핵연료취급장치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핵연료의 인출과 재장전, 이송, 사용 후 연료취급 등에 사용되는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은 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의 가동률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05년 3월 지식경제부의 국책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돼 약 3년간 한국전력기술, 해양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무진기연 등 산학연이 망라된 연구와 노력 끝에 지난 2월 독자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두산중공업이 이번에 개발한 핵연료 취급 장치 자동제어 시

스템은 한국수력원자력의 핵연료 취급 장치 사용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불편 사항을 수렴하여 우리나라 운전자의 체형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에는 이 시스템의 점검을 위해 해외 기술자를 초빙하곤 했으나, 이번 국산화로 자체 점검이 가능해 정비 기간 및 연료 교체기간을 대폭 줄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률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핵연료 취급 장치 자동제어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는 달리 원자로 건물 외부에서 연료교체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점검자의 방사능 피폭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두산중공업은 이 기술을 향후 국내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원전과 가동 중인 원전의 성능개선 프로젝트에 적용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 박석빈 상무(원자력 설계)는 “그동안 핵연료 취급 장치 및 제어 기술은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기술개발로 우리나라의 차세대 신형 경수로인 APR1400에 적용할 수 있는 독자 모델을 갖게 됐다”면서 “이번 기술개발로 원자력발전소 1개 프로젝트당 30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게 됐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의 가동률 향상으로 연간 40억 원의 발전 효과 및 정비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신기술 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